

학사경고생이 지각하는 대학교육서비스 질과 대학생활적응, 학습역량 간 구조적 관계 분석

A Study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Service,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Learning Competency Perceived by Students on Academic Probation

강대식*

남서울대학교 교양대학

Dae-Sik Kang*

Liberal Arts College, Namseoul University, Cheonan 31020, Korea

[요약]

본 연구는 학사경고생이 지각하는 대학교육서비스 질과 대학생활적응, 학습역량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학사경고생 대상 설문개발 및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행정서비스는 대학생활적응과 학습역량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p<.05$, $\beta=-.468$)을 미치는 나타났다. 둘째, 교육과정은 대학생활적응을 매개로 학습역량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p<.001$, $\beta=.782$)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활적응은 학습역량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p<.001$, $\beta=.89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사경고생 맞춤 대학행정서비스 및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대학생활적응 및 학습역량 향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structur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quality of college education service, college life adaptation, and learning competency perceived by undergraduate probation students.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questionnaires for undergraduate students and online questionnaire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university administrative service had a negatively significant effect on college life adaptation and learning competency.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curriculum had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learning competencies through college life adaptation. Third, it was found that adaptation to college life had a sta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learning competency. These research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improvement of college life adaptation ability through the operation of university administrative services and curriculum tailored to students with academic probation.

Key Words: Higher education service, Adaptation college life, Learning competency

<http://dx.doi.org/10.14702/JPEE.2023.351>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30 July 2023; Revised 15 August 2023

Accepted 29 August 2023

*Corresponding Author

E-mail: breakwind@nsu.ac.kr

I. 서론

국가적인 학령인구 감소는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완화 등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대학평가인증의 권한을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양하고 경영진단평가를 사학진흥재단에 넘기면서 대학의 책무성 또한 강조하고 있다[1].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정원미달 경향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학은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균형점을 맞추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특히 지방대학은 지리적·교육적·재정적 여건으로 인하여 신입생 충원을 및 재학생 유지율 등 교육의 책무성 담보를 위한 노력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예컨대 지방대학은 생존의 필수조건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거나 대학생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입학자원 감소, 재정여건 악화, 교육의 질 하락의 악순환 시스템에 갇혀 선순환적 대학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지방대학에서는 재학생 중도탈락 방지를 위하여 1학년 신입생부터 4학년 재학생까지의 학습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매년 증가하는 학사경고생 [3]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학사경고생 관련 연구도 점증하고 있는데 대부분 학생의 개인적 요인, 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대학교육환경이라는 체제적 관점에서 학사경고생 발생원인에 관한 구조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학사경고생 발생원인은 성적에 맞춘 대학입학, 입학 후 개인적 차원의 학습동기, 학습전략, 학습역량 부족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서비스의 질, 대학생활적응과 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2,3].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4]는 대학생의 학습역량 및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교육서비스 요인으로 교수강의, 교수-학생관계, 행정지원 및 시설지원의 중요성을 제시한 바 있으며, [5]는 대학교육서비스 요인인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6]은 교양교육과정의 질이 학습만족도 및 학습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학사경고생의 학습역량과 대학 행정서비스와 교육과정, 대학생활적응 변인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성을 가진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대학에서 학사경고를 받은 경험을 학생이 지각하는 대학교육서비스의 질(학사행정서비스, 교육과정)과 대학생활적응(대학환경적응, 학업적응), 학습역량(정서조절, 학습관리) 간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그 구조적 관계를 실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사경고생이 지각하는 대학교육서비스 질과 대학생활적응, 학습역량 간 관계성은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활적응은 대학교육서비스 질과 학습역량과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이다.

II. 이론적 배경

A. 대학교육서비스 질

대학교육서비스 질은 일반적으로 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에 관한 만족도를 의미한다. 대학 교육서비스 질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구성개념과 관련 영향변인 탐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성개념의 경우 물리적 요인(학습시설, LMS 등)과 비물리적 요인(행정서비스, 수업, 교육과정 등)으로 구분한 연구[7]가 대부분이며, 독립변인인 대학교육서비스 질의 종속변인으로는 대학생활적응, 학습만족도 및 학습성과[8]가 주를 이룬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대학교육서비스 질의 구성요인으로 대학행정서비스(학사행정서비스, 통학서비스)와 교육과정(전공, 교양)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에서 대학행정서비스 구성개념으로 통학서비스를 선택한 이유는 A대학 교 재학생의 70% 정도가 수도권 거주자이기 때문이다.

B.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지각하는 대학환경 및 학업, 사회적 적응에 관한 반응을 의미한다.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구성개념을 종합한 [9]는 대학생활적응척도를 개발하면서 학업적응, 사회적응, 정서적응, 환경적응을 제시하였다. 대학생활적응은 학습기술,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학업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매개변인인 대학생활적응의 구성요인으로 대학환경적응, 학업적응을 설정하였다. 사회적응과 정서적응을 제외한 이유는 독립변인인 대학교육서비스 질과의 관계성에 관한 선행연구가 미약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C. 학습역량

학습역량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학습역량 구성개념을 종합한 [11]는 학습역량 구성요인을 기본역량(문서작성, 화법구사, 미래설계, 정서조절), 심화역량(대인관계, 전공심화, 매체활

용, 학습관리), 활용역량(지역이해, 학습코칭)으로 구분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내생변인인 학습역량의 구성요인으로 정서조절 및 학습관리역량을 설정하였다.

D. 연구모형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련 변인들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반영한 가설적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과 같으며, 구체적으로 대학교육서비스의 질 하위요인은 대학학사행정서비스(학사행정서비스, 통학서비스), 교육과정(전공, 교양)이며,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은 대학환경적응 및 학업적응이며, 학습역량 하위요인은 정서조절 및 학습관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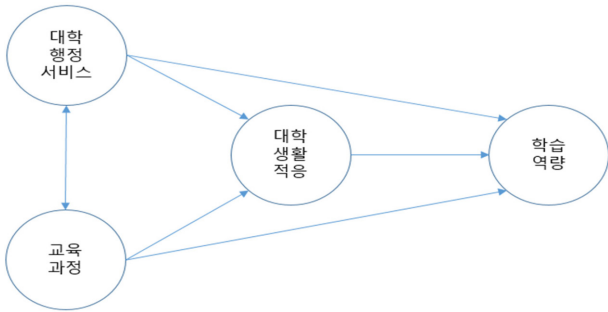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III.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학사경고생이 지각하는 대학교육서비스 질과 대학생활적응, 학습역량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충남 소재 A대학교 교무처의 협조를 통해 2021년 1학기~2022년 2학기 동안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명부(이메일)를 수합하여 2023년 3월에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연구의 취지와 개인정보 동의 절차 등을 거쳤으며, 최종 분석데이터는 229개 설문이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의 경우 남성이 138명(60.3%), 여성이 91명(39.7%), 학년의 경우 1학년이 43명(18.8%), 2학년이 57명(24.9%), 3학년이 83명(36.2), 4학년이 46명(20.1%)이다.

B. 측정도구

1) 대학교육서비스 질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교육서비스의 질 하위요인으로 대학행정서비스(학사행정서비스 및 통학서비스)와 대학교육과정(전공 및 교양)을 설정하였다. 먼저 학사행정서비스 측정도구는 [12]의 측정도구를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행정사항 공지 및 행정직원 친절도, 학사문제 해결 태도 등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학서비스 측정도구는 A대학교가 통계적 검증을 완료하여 자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통학의 용이성, 통학버스 배차 적절성, 통학버스 이용 편리성 등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 측정도구의 경우에도 A대학교가 개발한 전공 4개 문항, 교양 4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공통적으로 수업계획과 수업내용의 일관성, 엄정한 출석관리, 수업내용의 유용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측정도구는 모두 5점 척도이며, 본 연구자료의 신뢰도(내적합치도)의 경우 학사행정서비스는 .864, 통학서비스는 .727, 전공은 .702, 교양은 .702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2) 대학생활적응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으로 대학환경적응과 학업적응을 설정하였다. 측정도구는 [9]가 개발한 대학생활적응척도(SACQ: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대학환경적응은 대학생활적응 정도, 대학입학 만족도, 대학생활 자신감 등 6개 문항이며, 학업적응은 학업적응 만족, 수업의 질 만족, 대학공부 흥미 등 6개 문항이다. 상기 측정도구는 모두 5점 척도이며, 본 연구자료의 신뢰도(내적합치도)의 경우 대학환경적응은 .886, 학업적응은 .820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3) 학습역량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학습역량 하위요인으로 정서조절능력과 학습관리능력을 설정하였다. 측정도구는 [11]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정서조절능력은 목표 설정 자신감, 문제이해 자신감, 스트레스 대처능력 등 4개 문항이며, 학습관리능력은 학습계획 수립 및 실행, 학습시간의 효율적 활용, 학습몰입 등 6개 문항이다. 상기 측정도구는 모두 5점 척도이며, 본 연구자료의 신뢰도(내적합치도)의 경우 정서조절능력은 .821, 학습관리능력은 .880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C. 자료분석

연구자료 분석은 SPSS 24.0과 AMOS 24.0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모형 요인으로 확정된 변수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다. 둘째, 기술통계와 왜도, 첨도,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를 파악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을 위하여 [13]이 권장한 적합도 지수인 χ^2 , CFI, TLI, RMSEA를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A.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변인들에 대한 학사경고생의 인식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5점 만점에 평균 3점대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실행의 기본조건으로서의 정규분포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분석한 결과 모두 왜도는 2.0, 첨도는 7.0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1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모든 변인들 간 통

표 1. 기술통계

Table 1. Result of the descriptive analysis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대학행정 서비스	학사행정서비스	3.07	.717	.279	.998
	통학서비스	2.99	.787	.086	.671
교육과정	전공	3.26	.636	.183	1.152
	교양	3.35	.576	.225	2.274
대학생활 적응	대학환경적응	3.25	.704	.102	1.045
	학업적응	3.15	.705	.146	1.374
학습역량	정서조절	3.34	.728	-.124	1.246
	학습관리	3.34	.768	-.118	.285

표 2. 상관관계

Table 2.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변인	1	2	3	4
1. 대학행정서비스	1			
2. 교육과정	.703**	1		
3. 대학생활적응	.345**	.483**	1	
4. 학습역량	.186**	.344**	.717**	1

계적으로 .8이하의 유의한 정적 상관($p < .01$ 수준)이 있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에 문제가 없는 것[14]으로 나타났다.

B. 측정모형 적합도 검증 및 경로분석

1) 적합도 검증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chi^2=48.074$, TLI=.934, CFI=.967, RMSEA=.067로 적합도 수용기준 값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잠재변인의 측정변인들 모두 표준화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p < .001$)하며, 표준화 적재치가 모두 .5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모형 적합도 지수

Table 3. Model fitness index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값	48,074 (.000)	14	.934	.967	.067 (.057~.077)
수용기준값	-	-	>.90	>.90	<.08

표 4. 측정모형의 경로계수

Table 4. The path factor of measurement model

잠재변인	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대학행정 서비스	-> 학사행정서비스	1.000			
	-> 통학서비스	.880	.909	.076	11.526***
교육과정	-> 전공	1.000			
	-> 교양	.903	.857	.060	15.013***
대학생활 적응	-> 대학환경적응	1.000			
	-> 학업적응	.981	.813	.075	13.166***
학습역량	-> 정서조절	1.000			
	-> 학습관리	1.275	.922	.102	12.541***

*** $p < .001$

2) 경로분석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어 잠재변인 간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행정서비스는 대학생활 적응과 학습역량에 통계적으로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과정은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학습역량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학습역량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Table 5. The path factor of structural model

변인 간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대학행정 서비스	-> 대학생활적응	-.419	-.468	.186	-2.256*
	-> 학습역량	-.282	-.332	.139	-2.041*
교육과정	-> 대학생활적응	1.052	.983	.226	4.645***
	-> 학습역량	.140	.138	.193	.726
대학생활적응	-> 학습역량	.852	.897	.111	7.703***

***p<.001, *p<.05

한편 대학생활적응은 대학행정서비스와 학습역량 간, 교육과정과 학습역량 간의 관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매개)효과(P<.0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간 간접효과 및 최종 구조모형은 다음과 같다.

표 6. 변인 간 직·간접효과

Table 6. Direct and indirect effect

변인 간 경로	표준화계수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대학행정서비스 -> 대학생활적응 -> 학습역량	-.332	-.420	-.752
교육과정 -> 대학생활적응 -> 학습역량	-.138	.782	.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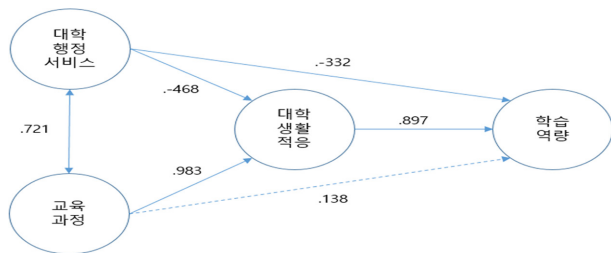


그림 2. 최종 구조모형

Fig. 2. Structural equation model.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15]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로써, 학사경고생은 기본적으로 대학행정서비스에 무관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은 학사경고생 대상 학사행정서비스 및 학습 정주여건을 강화하는 한편, 대학적응 및 진로설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교육서비스 질의 하위요인인 교육과정은 직접적으로 학습역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대학생활적응을 매개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활적응과 학습만족도와의 긍정적 관계성을 밝힌 [15]의 연구결과와 상통한다. 따라서 학사경고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준별 교육과정을 구안하는 한편, 대학환경 및 학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대학 내 별도 TFT를 구성하여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생활적응은 학습역량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활적응과 자아존중감의 긍정적 관계성을 밝힌 [5]의 실증과 유사하다. 따라서 학사경고생의 학습역량인 정서조절 능력 및 학습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전공, 교양, 비교과 교육과정의 체계적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적인 학사경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연구의 일반화를 통해 학사경고생 발생원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학사경고생과 일반학생과의 대학교육서비스에 대한 인식차이 규명을 통해 학사경고생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차원에서 학사경고생 감소노력은 교육의 질 제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대학교육에서 학사경고생 개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은 학업적응보다 선행되어야 하므로 대학 내 교육자원인 상담센터 및 취업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등 관련 부서의 연계를 통해 적극적인 종합 플랜 마련이 필요하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22학년도 남서울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을 통해 작성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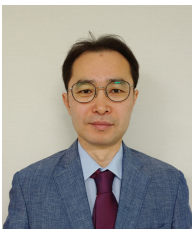
V. 논의 및 제언

학사경고생이 지각하는 대학교육서비스 질과 대학생활적응, 학습역량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와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육서비스 질의 하위요인인 대학행정서비스는 대학생활적응과 학습역량에

참고문헌

[1] MOE, “Regulations on University Establishment and Operation,” 2022.
 [2] D. S. Kang, “The effect of learning mentoring program on

- self-esteem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Korean Institute for Practical Engineering Education*, vol. 13, no. 1, pp. 73-79, 2021.
- [3] Y. J. Lee, H. J. Yang, and S. H. Cho, “Issues on the educational interventions for the college students on academic probation,” *Educational Method Research*, vol. 29, no. 1, pp. 161-184, 2017.
- [4] J. H. Kim and T. G. Park, “The effects of university education service quality on student satisfaction and loyal,”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vol. 8, no. 3, pp. 47-68, 2012.
- [5] J. H. Kim and J. H. Lim, “Male nursing students majoring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f college adapta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6, no. 1, pp. 91-100, 2016.
- [6] M. Y. Kim and M. Y. Kim, “An analysis on perception of the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liberal education and learning outcome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14, no. 1, pp. 193-218, 2020.
- [7] M. R. Kim and D. S. Hwang, “Consumer satisfaction model with educational services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4, no. 6, pp. 17-31, 2006.
- [8] D. Y. Chun, J. H. Kwon, and K. J. An, “The effects of e-learning service quality and participation of cyber university on student satisfac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Consumption Culture*, vol. 8, no. 4, pp. 185-208, 2005.
- [9] R. W. Baker and B. Sirky, “Expectation and reality in freshman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vol. 32, no. 1, pp. 94-103, 1985.
- [10] K. J. Kim, “Relationships among study skills, learning motivation, academic adjustments and academic achievements of college students,” *Development of Education*, vol. 23, no. 1, pp. 51-73, 2004.
- [11] M. H. Kim and D. S. Kang, “Development of learning competency scales : Focused on CTL learning program,” *Journal of KOEN*, vol. 15, no. 8, pp. 269-278, 2021.
- [12] M. R. Kang, “Research about influence of service quality of education on self-esteem and service orientation,” *The Korean Association of Logos Management*, vol. 12, no. 2, pp. 39-58, 2014.
- [13] J. F. Hair and W. C. Black, *Multivariate Data Analysis*, Prentice Hall, 2006.
- [14] G. S. Kim, *SEM Analysis*, Hanare, 2007.
- [15] D. S. Kang, “A study of ec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distance learning effectiveness in higher education environment,” Ph.D. dissertation, Chungnam University, 2013.



강대식 (Dae-Sik Kang)

1999년 2월 : 충남대학교 일어일문학 학사
2003년 2월 : 충남대학교 교육학 석사
2013년 8월 : 충남대학교 교육학 박사
2018년 12월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2019년 4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이러닝생태학, 교육공학, 교육평가